

왜 요한복음은 유대인에 대해서 삐딱할까?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14-16



반제회의 Wanseekonferenz (1942년 1월 20일)

‘유대인 문제에 관한 최종해결책 Endlösung der Judenfrage’

이 주제는 요한복음의 이해에서 중요한 열쇠
하지만 서구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
나치 홀로코스트 이후 서구의 반유대주의에
초기 교회의 문화가 기여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
특히 요한복음서는 이전까지 반유대주의적 성격의 성경으로 인식

1. 의외로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텍스트 Jewish text이다.

배경

4장(사마리아)을 제외하면 모두 갈릴래아와 유대지방

등장인물

빌라도를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사마리아인 포함)

메시아에 대한 잦은 언급

유대인적인 예수님

유대교 축제, 예루살렘 순례, 토라와 예언서의 인용, 유대교의 중

요한 개념인 성전, 계약에 대한 언급

매우 유대적인 텍스트인 요한복음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맥락은 매우 부정적이다.

얼마나 부정적일까?

2.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부정적인 캐릭터 negative characterization이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유대적인 요한복음이
그토록 반유대적이라는 역설

C. K. Barrett



호 이우다이오이 ho ioudaioi

유대인

요한복음에서 대략 70회 등장

대범하게 말하면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 요한복음 속의 독립적인 유대인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3:1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6:4



중립적인 유대인

17회 정도

주로 축제나 장례식, 몇몇 인물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니코데모, 세레자 요한의 제자들)

문자 그대로 중립적인 언급

4. 요한복음 속의 어리둥절한 유대인

군중은 ...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
예수님께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6:24, 41

축제[초막절]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7:15

어리둥절한 유대인

대략 13회 정도

주로 기적이거나 가르침 앞에서 설왕설래하는 역할

사실 이들은 신앙과 불신 사이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다.

5. 요한복음 속의 **적대적인 유대인**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10:31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선한 사람이오.”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분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7:12-1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19

적대적인 유대인

대략 29회 정도로 가장 많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과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6. 유대인 호칭 속의 이항대립

공관복음서와 대조할 때

유독 요한복음서가 유대인 **집단의 분화**를 잘 언급하지 않음.

요한복음서의 유대인의 역할을

공관복음서에서는 **바리사이와 사제**로 특정함.

왜 이렇게 요한복음은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까?

요한복음의 레토릭/수사법의 특징

이항대립

빛과 어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생명과 죽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위와 아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
이다.(8:47)

아들과 종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정녕 자유
롭게 될 것이다.(8:35-36)

하느님의 자식과 사탄의 자식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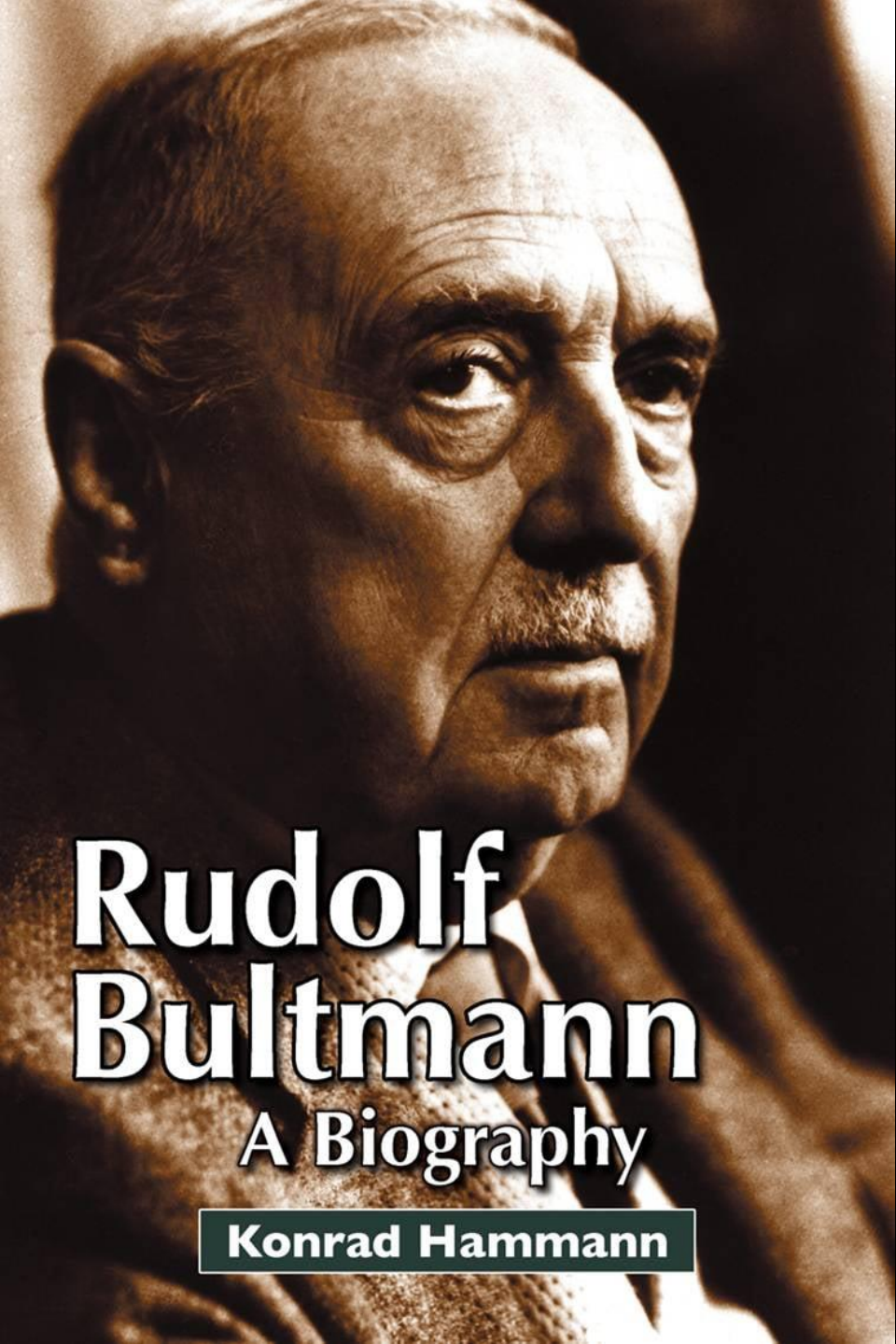
Chiaroscuro (키아로/빛 + 오스쿠로/어둠)

빛과 어둠으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는 미술기법





요한복음의 이항대립은 단지 수사적인 기법은 아니다.
하느님과 적대자 사탄의 우주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



Rudolf Bultmann

A Biography

Konrad Hammann

“호이 이우다이오이(유대인)는
역사 속의 집단이라기보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세상을
표상하는 실존적 상징이다.”

볼트만

7. 유대인 호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30-31

표징과 증언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신앙을 갖도록

혹은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려는 것.

즉 복음을 듣는 이들과 예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10:16

우리 밖의 양들도 한 양 떼 혹은 신앙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
선교사명이 목적이 되는 셈.

8. 유대인 호칭의 중층성

세 부류의 유대인

중립적 유대인-사회 문화적 기술

어리둥절 유대인-좌고우면하는 사람들. 표징 사건의 배경의 역할

적대적 유대인-배제의 논리(우리 밖으로 내몰기)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역동적인 집단이다.

예수님이 살던 세상이자 이웃이면서

예수님의 표징 앞에서 망설이는, 실존적 선택 앞에 선 이들이며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불신하는 이들이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에게 매료되어 따르면서도
의심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

정리와 결론

1.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텍스트이다.
2.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중층적이다.
3. 대체로 우리 밖의 양떼로 그려지며 상호배제의 대상이다.
4. 반면 유대인 호칭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우리 신앙의 여러 얼굴들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